

우승보다 동료애... 라이벌 구한 '요트맨의 우정'

세계대회 경쟁 상대 요트 파손에 경기 포기하고 수색 나서
칠흑같은 어둠 속 파도와 강풍 뚫고 조난 11시간만에 구조

세계에서 가장 힘든 요트 경기로 알려진 '방데 글로브'에 참가한 선수들이 우승 욕심을 버리고 요트 파손으로 위기에 처한 라이벌 선수를 구해 화제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대회에서 3위를 달리던 케빈 에스콤피어의 요트가 남대서양 한 지

점에서 거친 강풍과 파도에 부딪혀 절반으로 부서졌다.

그는 동료들에게 "나는 가라앉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조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요트를 버리고 구명정으로 옮겨 탔다.

조난신호를 받은 대회 운영팀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프랑스 선수 장 르 캤에게 연락

했다.

장 르 캤은 배머리를 돌려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거대한 파도와 강풍으로 동료들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앞서가던 다른 선수들도 요트를 돌려 수색에 동참했지만,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들은 동료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장 르 캤은 멀리서 에스콤피어가 보낸 조난신호를 발견하고 구조에 성공했다.

에스콤피어가 구조 신호를 보낸 지 11시간 만이었다.

장 르 캤은 경기를 망치게 해 미안하다는 에스콤피어의 말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난번에는 내가 빈센트의 경기를 망쳤다"고 말했다.

2008~2009년 시즌 방데 글로브에 참가했던 장 르 캤이 남미 최남단 케이프 혼 인근에서 요트가 뒤집혀 16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동료 빈센트 리우에 의해 구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방데 글로브는 프랑스에서 출발해 남극을 거쳐 돌아오는 논스톱 세계 일주 1인승 요트경이다. /연합뉴스



케빈에스콤피어(왼쪽)와 장 르 캤.



수비벽을 뚫고 2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뱅커스 라이프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NCAA(全美 대학 체육협회) 켄터키 와일드캣츠와 캔사스 제이호크스의 경기에서 켄터키의 테렌스 클락이 수비벽을 뚫고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 8연승이나 vs 우리은행 공동 1위냐

여자농구 내일 정면대결
창과 방패...관심 집중

여자프로농구 '양강'으로 꼽히는 청주 KB와 아산 우리은행이 4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벌인다.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22·196cm)를 앞세워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KB는 개막 후 2연패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7연승을 내달리며 강호의 면모를 되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도에 끝난 2019~2020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우리은행은 6승 3패로 단독 2위를 달리며 선두 KB(7승 2패)를 1경기 차로 추격 중이다.

이날 경기에서 KB가 승리하면 8연승과 함께 2

위 우리은행과 격차를 2경기로 벌리며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독주 체비를 갈출 수 있다.

반면 우리은행이 이기면 4연승을 거두며 KB와 공동 1위가 된다. 또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KB를 71-68로 물리친 데 이어 상대 전적 2전 전승으로 우위에 선다.

나란히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 경쟁 중인 두 팀의 이번 맞대결은 벌써 '미리 보는 챔피언결정전'으로도 손색이 없다.

연승에 상위권을 달리는 두 팀의 분위기는 당연히 상승세다.

KB는 득점(25.8점)과 리바운드(15.1개), 블록슛(3.1개) 1위를 달리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강아정과 최희진 등의 외곽포가 강점이다.

6개 구단 중 득점 1위(77.7점), 3점슛 1위(7.8개), 어시스트 1위(21.8개) 등 공격 지표에서

강세를 보인다.

이에 맞서는 우리은행은 주전 가드 박혜진이 개막전 도중 부상으로 빠진 이후 복귀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소니아, 박지현, 김민희 등 지난 시즌에 비해 일취월장한 선수들이 팀 상승세를 주도한다.

6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60점대 실점(63.1점)을 기록할 정도로 '짤물 수비'가 강점이다.

KB의 김민정, 염윤아와 우리은행 최은실 등 최근 부상 때문에 고생했던 선수들이 차례로 복귀해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에 힘을 보탠다.

김은혜 KBS 해설위원은 "역시 KB 박지수를 우리은행이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라며 "우리은행에서 어찌피 일대일로 박지수를 수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김소니아 등이 매치업을 이루면서 도움 수비를 효율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홀리필드, 돈 냄새 맡았나

"전 세계가 기다린다"...귀 깨문 타이슨에게 세번째 대결 요구

'해주먹' 마이크 타이슨(64)은 15년 만의 복귀전에서 불과 16분만 뛰고 1000만달러(약 110억원)를 벌어들였다.

상대인 로이 존스 주니어(51)도 300만달러를 손에 쥐고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

돈 냄새를 맡아서일까. 링에 부는 '복고 바람'에 에반드 홀리필드(58)도 가세했다.

홀리필드가 타이슨에게 3차전을 요구했다고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2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홀리필드는 1996년 11월 세계복싱협회(WBA)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타이슨을 11라운드 TKO로 물리치고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둘렀다.

이듬해 6월 재대결에선 타이슨이 귀를 물어뜯는 만행을 저질러 반칙승으로 2전 2승의 전적을 남겼다. 이후 앙숙처럼 서로를 비난하며 지내던 두 선수는 2009년에서야 화해했다.

홀리필드와 타이슨은 당시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고 홀리필드가 타이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핵이빨' 사건의 매듭을 지었다.

타이슨의 복귀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홀리필드는 전 세계가 3차전을 고대하고 있다며 도전장을 던졌다.

홀리필드는 ESPN을 통해 낸 성명서에서 자신과 타이슨의 3차전이 "글로벌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보고 싶은 유일한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 싸움은 우리의 유산을 위해 성사되어야 한다. (타이슨이 15년 만에 링에 오른) 토요일 밤, 너나와 상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하고 링에 오르자. 타이슨, 전 세계는 이 싸움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나머지 너에게 달렸다"고 했다.

타이슨은 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전 4등급 세계 챔피언 존스 주니어를 상대로 15년 만에 링에 복귀했다.

타이슨을 깨우고 시간 지연에만 급급한 존스 주니어 탓에 기대했던 '라스트 댄스'가 아닌 '라스트 블루스'가 됐지만 타이슨은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홀리필드는 2011년 5월 브라이언 니엘센을 10라운드 TKO로 꺾은 것을 마지막으로 링에 오르지 않았다.

타이슨과 3번째 대결이 실현된다면 10년 만에 링에 돌아온다. /연합뉴스

KPGA 선수가 꼽은 최고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 GC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대표이사 김중안)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선수들이 꼽은 최고의 골프 코스로 선정됐다.

KPGA는 올해 코리아투어 대회에 출전한 159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최고 코스'를 묻는 설문에서 47.2%가 잭 니클라우스 GC를 선택했다.

잭 니클라우스 GC는 코리아투어에서 가장 총상

금이 많은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개최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아시아 소제 골프장 최초로 PGA 챔피언스투어를 개최했고 2015년에는 프레지던트스컵을 유치했다.

선수들은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 그린, 그리고 코스 컨디션 등이 모두 최상"이라며 "최고의 경기력

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평가했다.

현대대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을 치른 경기도 여주의 페럼클럽과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열린 경기도 파주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이 각각 20.8%, 15.3%로 2위와 3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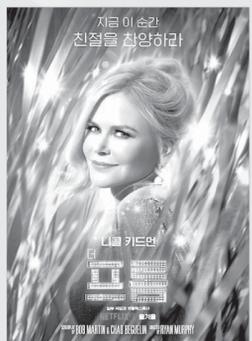
KPGA는 오는 15일 경기도 용인 제네시스 수지전시관에서 열리는 2020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때 잭 니클라우스 GC에 '베스트 토너먼트 코스상'을 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이웃사촌 |
| 2관 | 런 |
| 3관 | 이웃사촌 |
| 4관 | 이웃사촌 |
| 5관 | 더 프롬 |
| 6관 | 도굴 |
| 9관 | 프리키 테스트이 |
| 7관 씨네카를 | 더 프롬, 삼진그룹 영어투어반, 프린세스 에마: 마법 책의 비밀 |
| 8관 씨네카를 | 도굴, 친척날 |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